

'무한질주' 벤츠 기세 무섭네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른 E300.

지난달 5797대 판매...국내 승용차 판매량 4위
벤츠 E 클래스 소비자 선호도 뚜렷
E300 1월 베스트셀링카 1위
지난달 6종류 베스트셀링카 10위권 진입



벤츠는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 베스트 셀링카 10위권에 6대를 올리며 내수 4위에 올랐다. 베스트셀링카 10위를 기록한 GLC 350 e 4매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세가 무섭다. 수입차 최초로 연간 판매 7만 대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체보다 많이 팔리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메르세데스 벤츠는 5797대를 판매하며 국내 전체 승용차 판매량(상용차 제외) 중 4위에 올랐다. 벤츠의 지난달 판매량은 1년 전(7509대)에 견줘 22.8%가 줄었음에도, 현대차(4만5107대), 기아차(3만2915대), 쌍용차(8787대) 다음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르노삼성차는 1년 전(6402대)보다 19.7%가 감소한 5144대를 판매하는 데 머물렀고 한국GM도 전년도 같은 기간(7257대)보다 38.3%가 줄어든 4481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벤츠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2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내수 4위로 올라선 이래 3개월 연속 4위를 차지한 뒤 지난해 5월부터 다시 6위로 내려앉았다가 이번에 복귀했다.

벤츠 E 클래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뚜렷한 점이 판매량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자동차업계 분석이다.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지난해에만 E300(1531대), E300 4매틱(989대), C220d(685대), CLS 400 d 4매틱(550대), E220d(545대), GLC 350 e 4매틱(447대) 등 6종류를 베스트셀링카 10위권에 올렸다.

특히 E300은 지난해 10~11월 2개월 연속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른데 이어 올해 1월도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다. E300의 1월 판매량은 현대차의 G70(1408대), G9 EQ 900(1387대), 기아차의 K9(1047대)보다 많다. 벤츠가 세단 E클래스 기본형을 기존 'E200'에서 'E300'으로 바꾸는 라인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또 벤츠 E-클래스의 경우 2016년 6월 완전변경(폴체인지) 모델이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유지하며 각종 신기록을 작성하는 주역으로, 지난해에는 E-클래스 판매량이 3만5136대에 달했다. 한편,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1만8198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줄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수출 모두 감소세

생산량 2.1% 줄어 402만대
수출 6년 연속 감소 245만대

10대 자동차 생산국 순위

2017년		2018년	
1위 중국	2902만(3.2)	1위 중국	2781만(-4.2)
2 미국	1119만(-8.1)	2 미국	1131만(1.0)
3 일본	969만(5.3)	3 일본	973만(0.4)
4 독일	617만(-0.6)	4 독일	564만(-8.7)
5 인도	478만(6.5)	5 인도	517만(8.3)
6 한국	411만(-2.7)	6 멕시코	411만(1.0)
7 멕시코	407만(13.0)	7 한국	403만(-2.1)
8 스페인	285만(-1.5)	8 브라질	288만(5.3)
9 브라질	274만(25.7)	9 스페인	282만(-1.0)
10 프랑스	229만(9.6)	10 프랑스	233만(1.6)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산·수출 모두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등 조그라드는 모양새다. 자동차산업이 고용·생산 등 광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놓은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000대로 집계됐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2015년(455만6000대) 이후 계속 감소세로, 422만9000대(2016년) → 411만5000대(2017년) → 402만9000대(2018년)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한국 자동차 생산량 순위도 하락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세계 7위로, 지난 20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어준 지 2년 만에 멕시코에도 추월당했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2%에서 4.1%로 줄어 들었다. 반면, 멕시코는 전년(406만9000대)보다 1.0% 증가한 411만대를 생산하며 6위에

올랐다. 멕시코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 불안과 여름 홍수피해로 인한 일부 생산 차질에도, 북미·중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에 올랐다. 중국이 10년 연속 자동차 생산 1위 국가 자리를 지켰다. 중국의 2018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보다 4.2% 감소한 2780만9000만대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 1위 생산국을 차지했다.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인도 등 순이었다.

수출 경쟁력도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12년(317만1000대) 이래 6년 연속 감소세다. 수출량의 경우 ▲2013년 308만9000대 ▲2014년 306만3000대 ▲2015년 297만4000대 ▲2016년 262만2000대 ▲2017년 253만대 ▲2018년 245만대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세계 경기 둔화로 자동차 시장 전체가 예상되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여전한 전망은 밝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기아차 전기차 시장 '톱10' 진입

지난해 9만860대 판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판매량 기준 '톱 10'에 진입했다. 올해도 기아차 전기차 중 최장 주행거리를 갖춘 쏘울 부스터 EV 출시 등을 계기로 연간 10만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와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EV 세일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작년 한 해 국내외 시장에서 9만8600대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순수 전기차)를 팔아 폭스바겐(8만2685대)을 제치고 제조사별 순위 8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의 작년 전기차 판매량은 10위권 밖이었던 2017년(4만7000여대)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한 데는 현대차 코나 EV, 기아차 니로 EV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기반 신형 전기차 등장한 영향이 컸다.

코나 EV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2만2787대가 팔려 현대·기아차 전기차 모델 중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으며, 니로 EV는 7362대가 판매됐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연간 전기차 판매



쏘울 부스터 EV

량이 10만대 고지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나 EV와 니로 EV의 인기가 여전한 데다, 쏘울 부스터 EV와 더 뉴 아이오닉 EV(상품성 개선 모델) 등 신차 2종이 가세하면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쏘울 부스터 EV는 기존 대비 80% 이상 향상된 150km의 출력을 확보했고 1회 충전 시 386km를 달릴 수 있어 기아차 전기차 중 최장의 주행거리를 갖췄다.

한편,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는 24만5240대를 기록한 테슬라가 차지했

다. 2위는 중국 비야디(BYD·22만9339대), 3위는 르노-닛산-미쓰비시(19만2711대)였다.

그 밑으로는 BMW(5위·14만2천217대)와 현대·기아차(8위), 폭스바겐(9위)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연간 글로벌 판매량이 200만대 이상인 완성차업체로 범위를 한정하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르노-닛산-미쓰비시, BMW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이 순위에서 2016년부터 꾸준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등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시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7(일) ~ 21(목)
• 전 형 일: 2019. 2. 22(금)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 형 일: 2019. 2. 22(금)

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 형 일: 2019. 2. 22(금)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